

“다시 만나는 오월” 5·18항쟁 45주년 전야제 거행

45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전야 행사가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졌다. 12·3비상계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전야제에서 시민들은 오월광주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구해냈다는 것에 공감,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다시금 강조했다.

제45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5주년 5·18전야 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날 무대 행사는 금남로 네거리에서 사면이 트인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전야제의 꽃으로 불리는 무대 행사는 전일빌딩245 앞 삼거리에서 금남로 47역 교차로로 옮겨졌다. 사거리 중심으로 모여 서로를 마주 보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다.

행사는 전야제의 전통인 ‘민주평화대행진’으로 시작했다.

1980년 5월 14일 당시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에 맞서 전남대학교 정문부터 시작된 금남로 진출 투쟁이 다시 재현됐다.

대행진 참가자 1만5000여명(주최측 추산)은 오후 4시부터 5갈래로 나뉘어 출발해 금남로로 모였다.

민주 수호·자주 평화·사회 대개혁·내란 청산·평등 연대 등 5개 행진단으로 꾸러진 이들은 저마다 5·18 사적지인 광주고등학교와 북동성당, 전남대학교, 광주역, 조선대학교에서 모여 행진에 나섰다.

특히 광주고에서 출발한 청소년으로 구성된 민주수호 행진단 2500여 명은 교복을 입고 대형 태극기를 든 채 행렬을 이끌었다. 내란 청산 행진단은 전남대에서 금남로까지 3.4km 구간을 행진하며 45년 전 ‘민족민주화성회’를 재현했다.

‘민주·평화·개혁·내란 청산·평등’ 대행진 1만5000여명 참여
오월정신 따라 12·3계엄 딛고 ‘민주주의 승리’ 뮤지컬 눈길
‘기념사 불발’ 우원식 국회의장 무대 올라 “오월 헌법 수록”

행렬에는 5·18희생자 가족, 민족민주열사 가족, 전국의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제주 4·3, 여순 사건, 대구2·28항쟁, 부마항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족, 사회적 참사(세월호·이태원) 유족, 시민사회, 노동·농민단체,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이들이 합류한 금남로 일대는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대개혁,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 물결로 장관을 이뤘다. 항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도 숭고한 항쟁 정신을 이어받겠다며 행렬을 뒤따랐다.

같은 시간 금남로 일대에서는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를 주제로 ‘오월시민난장’ 프로그램이 열렸다.

전야제는 환영의 대축제, 민주주의 대축제, 빛의 대축제 3부로 꾸러졌다.

5·18희생자 가족인 오월어머니들의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과 ‘맨발의 보컬리스트’ 가수 이은미 등 가수·밴드들의 공연이 열렸다.

특히 주제 공연인 뮤지컬 ‘봄의 겨울, 겨울의 봄’을 통해 5·18에 이어 12·3비상계엄에 항거한 시민을 대자비해 조명했다.

5·18 당시 산화한 민주 열사들의 희생이 12·3계엄을 저지하고자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의 의지가 ‘승리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1980년 오월 우리는 무척 무서웠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들이 우리를, 오월을 불러줬다. 5·18은 민주주의의 꽃이 됐고 광주는 민주·인권의 도시로 활짝 꽃 피었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 5·18 전야 행사 이래 최초로 현직 국회의장이 공식 초청을 받아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반대로 불발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공식 기념사를 광주 금남로 항쟁 전야 행사에서 낭독하며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 당위성을 역설했다.

우 의원은 “광주의 희생과 단호한 투쟁이 있어 202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졌다. 무도한 시대를 광주와 우리 국민이 물리친 역사가 쌓여 12·3 계엄도 국민과 국회가 해제시켰다”며 “오월 정신을 헌법 자리에 올려야 한다.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새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야제에 모인 시민들 역시 계엄 정국 속 흔들릴 위기에 놓인 민주주의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오월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한모(27)씨는 “5·18이 헌법에 수록된다면 직접적으로 계엄 선포를 저지하는 법적 효력은 낮을 지 몰라도 상식과 법에 근거해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계엄 선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모(47·여)씨는 “유튜브나 인터넷 상에서 5·18왜곡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야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역과 전남대, 조선대 등지에서 출발한 시민들로 이뤄진 민주평화대행진단이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

해서 헌법에 오월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대구에서 온 김모(68)씨는 “5·18이 지역을 갈라치기 하는 폼페이로 전락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관으로 5·18 민주항쟁 제44주년 추모제가 열렸다.

/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전야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불굴의 의지… 새기고 또 기리자”

5·18민주화운동 45주기 하루 앞둔 국립5·18민주묘지

추모 분위기 절정… “민주주의 수호 앞장서자” 다짐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신록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수백여기 희색 묘비들 사이로 민주영령들을 기리러 온 발걸음이 이어졌다.

발걸음들은 이내 저마다 찾아온 열사들의 묘비 앞에 멈춰섰다. 고(故) 윤상원, 문재학, 김경철, 이세종, 전재수 등 45년 전 분연한 항쟁에 뛰어든 민주투사 또는 영문도 모른 채 스러진 넋을 향해 고개 숙이고 추모했다.

윤 열사의 묘소를 찾은 참배객들은 해설사의 설명에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떠올리고 눈빛으로 결의를 다졌다. 최후 항전까지 남아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윤 열사를 기리며 헌화한 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주인공의 실존 모델인 문 열사의 묘소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한 중년 여성 추모객은 문 열사 또한 윤 열사와 함께 최후 항전 당시 도청을 시수하다 숨졌다는 것을 처음 알아차리고는 처연한 표

정을 지어보였다.

“어린 나이에”라며 말끝을 흐린 그는 묘비를 한차례 쓰다듬고 한발 물러선 뒤 묵념했다. 45년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행방불명자들을 추모하는 발걸음도 이어졌다.

행복자 정경채씨 의령비 앞에서 추모객들은 다시 한번 가슴앓이했다. 1980년 5월 20일 행방이 묘연해진 석공이자 시민군이었던 정씨를 기리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긴 묵념 끝에는 위로를 모두 담아내지 못한 참목만이 남았다.

오월 영령들이 꿈꿨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도 모였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도 민주익문 앞에서 회견을 열어 영령들을 추모하고 뜻을 이어받겠다

고 다짐했다.

일본에서 온 참배객들도 열사들의 묘소를 다니며 자국에는 없었던 민주주의 탄생 과정에 대해 공부, 80년 5월 광주시민들의 분연한 투쟁을 마음에 새겼다.

추모객들은 45주기를 맞는 5·18이 유독 뜻깊다고 입을 모았다.

12·3비상계엄을 이겨낸 80년 5월을 기리는 순간이 그 어느때보다도 값지다며, 민주국가 완성을 위해 투신한 영령들을 오래도록 기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서안(21·여)씨는 “12·3비상계엄으로 5·18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45년 전 비극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열사들의 뜻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품은 뜻일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맞선 불굴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영령들을 추모했다.

/뉴스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일본인 참배객들이 열사들의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뉴스

